

“UAM 타고 2030년 부산~동백섬 짜릿한 비행”

라스베이거스 매료시킨 SKT ‘실감 K-UAM 가상체험’

SK 전시관 마련된 가상체험
관람객 발걸 이어지며 인기
가상공간에 미래도시 구현 ‘주목’

SK텔레콤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실감나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가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SKT는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번 CES에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항공교통 체계가 정착된 미래도시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주목받았다. SK 전시관에 설치된 UAM 항공기 형태의 가상 체험 시뮬레이터는 CES 2023 행사장(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핵심부인 센트럴 홀(Central Hall)에서 관람객의 발걸이 끊이지 않는 체험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들이 승객 4명이 탑승하는 실물 크기의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SKT는 CES 2023에서 K-UAM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세계인들을 사로잡았다. /SKT

좌석에 올라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2030년 미래 부산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부산역에서 이륙해 동백섬으로 비행하는 동안 업무 일정과 회의 자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안내에

따라 환승 교통편을 예약하고 여행에 어울리는 음악도 들을 수 있다.

SKT는 이번 CES에서 SK그룹 8개사가 넷제로(Net Zero)를 주제로 함께 꾸민 전시관에 참여했다. UAM, AI반

도체 ‘사피온(SAPEON)’, 신재생 에너지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를 연계한 친환경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UAM 항공기 운항에 사피온 반도체

를 활용하면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가상 발전소 기술을 통해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의 전력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가상 발전소란 개인이나 사업자가 각 지역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해 소규모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플랫폼으로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개념의 가상의 시스템이다.

관람객들은 한국형 UAM의 상용화를 선도하는 SKT의 독자적인 기술력에 주목했으며, SKT와 세계적인 UAM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의 협업 진행 상황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SKT 관계자는 “CES에서 제시한 미래상처럼 SKT와 우수한 파트너사들의 역량을 모아 글로벌 UAM 기술 경쟁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UAM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에쓰오일, 미래 에너지·신사업 기회 모색

류얼 사장 참관... 경영진 첫 방문
투자 벤처기업 소개 부스도 마련

에쓰오일이 미래 청정 에너지 공급자로 변모해 가는 노력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와 신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CES에 참가했다. 에쓰오일은 직접 투자 벤처기업들을 소개하기 위한 부스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류얼 에쓰오일 전략 관리총괄 사장이 5일(현지시간) CES 2023 현장을 참관했다. 류 사장은 에스-오일이 직접 투자한 플렉시블 배터리 업체 리베스트, 친환경 건축자재 업체인

‘범준E&C’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기업들의 성장과 홍보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류 사장은 국내 주요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해 관심있게 살펴본 뒤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구현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청정 에너지 공급자로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자동차 전동화, 전기 중심 에너

지 대전환,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사장의 CES 방문은 에쓰오일 경영진이 CES를 찾은 첫 사례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전 세계 테크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을 경쟁하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소비자 단에서의 기술의 변화, 시장환경의 변화를 직접 체감해 에너지 기업이 향후 대응해야 할 방향과 취해야 할 전략에 따른 통찰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얼 에쓰오일 사장(오른쪽 2번째)이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에쓰오일 부스를 찾아 이 회사가 직접 투자한 벤처기업들이 출품한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에쓰오일

에쓰오일은 장기 성장전략 ‘비전 2030’을 통해 기존 사업분야인 정유, 석유화학, 운할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수소, 연료전지,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등 신사업 분야에도 진출해 회사의 지속성장을 견인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석유 탐사기술, 탄소 저장에 활용... “1600만 톤 땅에 묻는다”

SK어스온 테크데이
2050년까지 탄소저장소 확보
국내외 CCS 사업 본격 추진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어스온은 CES2023에 참여해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에 대해 선보였다. SK에너지와 SK화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저장하는 게 SK어스온이 선보일 기술의 골자다. SK 어스온은 2050년까지 16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SK어스온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3’에서 테크데이를 개최하고 CCS 사업목표를 밝혔다. 향후 SK어스온은 CCS 사업을 확대해 2030년 200만톤, 2040년 500만톤, 2050년 1600만톤 이상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SK에너지, SK화학의 사업중 하나



노정용 SK어스온 그린 센터장이 CCS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인 석유화학 사업은 탄소배출이 어렵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친환경 사업의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가시화되고 있다.

SK어스온은 국내외에서 CCS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저장소 발굴 공

동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탐사 수행을 통해 저장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체결한 한국-말레이시아 간 탄소포집-운송-저장사업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를 비롯해 호주 및 북미 지역에서 CCS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 사업인 CCS는 SK어스온의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의 대표 사업이다.

CCS 사업은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을 통한 넷제로 달성에 강력한 수단으로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철강, 비료, 시멘트 등 기존 산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계획된* 전세계 CCS 저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간 2.3억톤, 2030년까지 7.2억톤 규모다. 연평균 성장률은 32%다.

CCS 저장소 탐사,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은 석유 탐사, 개발에 적용되는 지하 구조 탐사, 개발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 SK어스온은 지난 40년간 석유개발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왔다. SK어스온은 정교한 모델링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리스크 평가와 최적의 운영 조건 도출이 가능하며, 저장소 특성에 맞는 최적의 모니터링 방법도 설계할 수 있다. 석유를 땅속에서 캐내는 역량을 역으로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땅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노정용 SK어스온 그린 센터장은 “CCS 사업은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저장소 발굴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탐사 기술 수준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SK어스온은 지난 40년간 탐사광구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탐사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CCS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허정윤 기자

>> 1면 ‘존재감 빛난 韓’서 계속

LGD·현대모비스 등 모빌리티 신기술 공개

LG디스플레이도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위한 초대형·슬라이더블·투명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전시관을 꾸렸다. 현대모비스는 단순한 차량 부품 공급사를 넘어 전동화와 자율주행으로 요약되는 미래차 시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HD현대그룹은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담은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비전을 발표하면서 조선·해양, 에너지 등 관련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